

2026년 3월 17일

Macro Snapshot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Economist 김유미 helloym@kiwoom.com

키움증권

유가 리스크 vs 노동시장 냉각

금융시장의 관심은 여전히 중동 전쟁에 쏠려있다. 관련 뉴스 흐름에 따라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금융시장 내 주요 가격 변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국제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준의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도 지속되는 모습이다.

이번 주 3월 FOMC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은 이미 시장에서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금융시장의 관심은 연준 의장이 최근 유가 상승을 어떻게 평가할지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유가 급등을 공급 측 충격에 따른 일시적인 변수로 판단한다면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 다만 유가 상승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경우 금융시장에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국제유가의 향방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정상화 여부에 크게 좌우될 전망이다. 정치·군사적 변수의 특성상 쉽게 예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중동 전쟁이 2주 이상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있다는 뉴스가 전해지는 등 긴장 완화를 시사하는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이란과 미국 모두 최악의 충돌은 피하려는 유인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준은 이번 회의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은 유지하겠지만 통화정책 방향을 변경할 정도의 변수로 판단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 인플레이션과 관련해 현재 시장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공급측 충격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될 경우 다시 노동시장 둔화에 따른 수요 측 인플레이션 완화에 관심을 이동할 필요가 있다. 최근 세인트루이스 연은은 “The Effects of a “Low-Fire, Low-Hire” Economy on Workers(’26.03)”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현재 미국 노동시장이 해고도 적고 채용도 적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구조가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자료다.

보고서는 최근 이직이 감소하면서 노동시장 이동성은 낮아지고 있는 현상을 지적했다. 그 배경으로 기업과 노동자 측면의 요인을 함께 제시했다. 기업은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채용 확대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노동자는 새로운 직장을 찾기 어려워 현재 직장에 머무르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는 노동시장의 활력을 떨어뜨리며 정체 상태에 가까운 모습을 만들 수 있다. 노동시장 경쟁이 악화되면서 임금 상승률도 점차 둔화되는 흐름이 나타난다. 또한 해고가 줄어든 모습은 겉보기에는 고용 안정으로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소득 성장과 경력 이동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환경은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 실직자, 경력 전환을 시도하는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해 구직 기간이 길어지고 장기 실업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은 현재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진 상황에서도 임금 기반 서비스 인플레이션 압력은 점차 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연준 통화정책 측면에서 향후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Macro Snapshot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